사계절 잉글랜드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힘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하프 부문에 도전한 마라토너들이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빠져나와 반환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은 낮 최고기온 섭씨 13도까지 올라가는 화창한 봄 날씨로 달리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참가자들이 겨우내 닦아 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희망잃지 않는 당신 … 모두가 승자입니다

제 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1일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린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은 전국에서 모여든 1만 마라토너들의 힘찬 함성으로 요동쳤다.

출전자들은 42.195㎞를 달리는 풀코스를 비롯해 하프, 10㎞,5㎞ 등에서 레이스를 펼치며 숭고한 3·1 정신을 기렸다.

새로운 계절을 기다려온 1만 출전자들은 화사한 봄 볕 아래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예년보다 좋은 기록을 쏟아냈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점으로 해 나주 남평교에 이르는 영산강변을 돌아온 풀코스 부분에서는 심재덕(41·경남 거제)씨와 정기영(51·대전)씨가 각각 남녀부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재덕씨는 2시간32분18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었고, 정기영 씨는 3시간03분46초만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특히 심재덕 씨는 지난 42회, 43회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월계관을 쓰면서 3연패를 달성, 아마추어 최강 마라토너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다. 기록도 지난해 2시간37분21초에서 5분3초 단축했다.

여자부 우승자인 정기영 씨는 이번 우승을 통해 지난해 풀코스 부문 2위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달랬다. 두 우승자는 내년 대회에서 연패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하프부문 남녀 우승자 백영인(36·경북 구미)씨와 이정숙(44·충북 천안)씨는 각각 1시간11분20초와 1시간22분90초에 골인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10㎞ 남자부에서는 김용택(31·인천)씨가 32분59초로 1위를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여종선(38·서울)씨가 37분43초로 여자부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5㎞에서는 최원석(37·전북 익산)씨가 15분33초로 남자부 1위, 남미옥(43·전북 군산)씨가 17분51초로 여자부 2연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각 부문별 입상자

풀코스(남자)			풀코스(여자)		
1	심재덕	(2시간 32분 18초)	1	정기영	(3시간 03분 46초)
2	김동욱	(2시간 33분 17초)	2	김애경	(3시간 07분 22초)
3	구병주	(2시간 38분 48초)	3	진애자	(3시간 13분 34초)
하프(남자)			**하프(여자)**		
1	백영인	(1시간 11분 20초)	1	이정숙	(1시간 22분 00초)
2	이용희	(1시간 11분 56초)	2	유정미	(1시간 26분 47초)
3	김효상	(1시간 12분 52초)	3	장공주	(1시간 29분 33초)
10㎞(남자)			**10㎞(여자)**		
1	김용택	(32분 59초)	1	여종선	(37분 43초)
2	한석주	(33분 37초)	2	김미선	(38분 37초)
3	정해덕	(34분 08초)	3	하유숙	(39분 17초)
5㎞(남자)			**5㎞(여자)**		
1	최원석	(15분 33초)	1	남미옥	(17분 51초)
2	박성용	(15분 35초)	2	송미숙	(18분 08초)
3	안계원	(15분 38초)	3	유수향	(18분 36초)

풀코스 남녀 우승자 심재덕(41·경남 거제·왼쪽)·정기영(51·대전)씨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윤여춘이 바라 본

3·1절 마라톤

"민족 염원 담은 레이스 대회 운영도 업그레이드"

2009년 3월 1일 오전 10시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제 44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1만여 전국 마라톤 마니아들이 모여 빛고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거대한 신호탄을 쏘았다.

- 매년 3월 1일은 모든 국민들에게 봄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탄이며!

-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은 90년 전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간절히 원하는 함성의 신호탄이었으며!

- 2009년 3·1절 마라톤은 모든 달림이에게 한 해의 레이스를 시작하는 마라톤 레이스의 신호탄이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이곳 한반도 전역에서는 민족의 해방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민족의 거대한 신호탄이 울려 퍼졌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우리 선배들은 분연히 일어나 두 팔을 힘껏 올리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해방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세계의 역사에서 어느 민족이 이렇듯 커다란 소망을 담아 온 국민이 전 국토에 걸쳐서 신호탄을 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어지간한 기쁨이나 진정코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면 두 팔을 높이 들고서 만세를 외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주하고 들어오는 참가자들이 두 팔을 올리고 골인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90년 전 민족의 해방을 위해 전 산야를 만세의 물결로 외치던 모습이 연상되고, 그들의 힘찬 파이팅 외침에서 민족의 해방을 기원하는 선배들의 외침이 들리는 듯했다.

44회 동안 3·1운동의 뜻을 기리는 3·1절 마라톤 대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신 주최, 주관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신호탄은 줄기차게 쏘아 올려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MBC 마라톤해설위원〉